

# 완도군 기후 변화 대응 2039억원 투입

녹색 성장 기본법 근거 5개년 계획  
산림·생태계, 연안, 농축수산 등  
2030년까지 45개 맞춤형 전략 가동

완도군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2026~2030년)'을 수립해 고수온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가동한다.  
완도군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03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과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세부 계획을 다듬어 왔으며,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군이 분석한 기후 전망에 따르면 완도 지역은 향후 평균기온이 1℃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고수온, 집중호우 빈도 증가로 인해 연안 침수 피해와 농수산업 전반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생산성 저하 ▲어업 환경 급변 ▲연안 기반 시설 및 산업단지 피해 등이 주요 위협으로 꼽혔다. 이에 군은 제2차 대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완도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마련에 주력했다.

새롭게 수립된 제3차 대책은 '기후 위기에 안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 안심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축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적응 주류화 실현 등 7개 부문에서 4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5년간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기후 적응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차별 이행 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자은도에 들어선 땅콩 가공시설.

## 신안군, 자은도에 땅콩 가공시설 준공

연간 50~60t 땅콩 가공제품 생산

신안 자은도에 토종 땅콩 생산 시설이 들어섰다. 신안군은 지난해 말 자은도에 땅콩 가공시설(705㎡)을 준공하고 땅콩 가공 전문 업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볶음땅콩, 땅콩버터, 땅콩유 등 주력 가공식품을 생산해 온라인 유통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신안 땅콩을 주원료로 연간 50~60t 규모의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가와의 계

약 재배를 통한 상생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은도 땅콩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사질토에서 자라 알이 굵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20 농가에서 29ha를 재배해 90t을 생산했으며 재배면적이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땅콩 가공시설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 시설"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창의체험 '열린공방' 상시 개방

예약 없이 다양한 만들기 활동

무안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도 자유롭게 방문해 만들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열린공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열린공방'은 놀면서 만들고 편하게 머무는 공간을 컨셉트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은 예약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수련관을 찾아 준비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방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만들기, 생활 소품 제작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체험이 이뤄진다. 완성된 결과물보다 만드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뒤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표현과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열린공방은 혼자 방문해도, 친구와 함께 찾아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옆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린공방은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상시 운영되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열린공방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무안군청소년수련관(061-450-5533-5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희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열린공방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러 손으로 만들며 마음의 여유

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행안부·권익위 전국 기관 평가

영광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전국 30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기관유형별 상위 30%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성과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민원 행정 전반을 평가한다. /영광=이용삼 기자 2yong3@kwangju.co.kr

## 영암군, 뚝은감 농가에 첫 가격안정기금 지급

34개 농가에 3700만원 지원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뚝은감 재배 농가에 3700만원을 지급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도입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제도를 이번 처음 집행했다.  
지난해 3월 영암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품목으로 뚝은감과 무화과, 고구마, 풋고추, 단감 등 12개 품목을 지정하고 각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확정·고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뚝은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하자 두 가격의 차액인 1kg당 173원을 최종 가격안정기금 지급액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가격안정기금 참여를 신청하고, 수확기 계통출하 실적이 확인된 뚝은감 농가 34곳에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생산 면적 대비 과다 출하 농가는 최근 3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형평성까지 확보했다.  
군은 다음 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농산물 품목과 최저가격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가격 변동 위험에서 영암 농가를 지켜내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제도를 처음으로 집행했다"라며 "품목 확대, 제도 보완 등으로 농가소득을 더 두텁게 보전하는 제도로 정착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토박이의 언어로 다시 쓴 항구의 시간

손영득 작가 인문 에세이 출간

목포의 역사·문화·사람 풀어내

목포 토박이 손영득 작가가 항구도시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삶의 언어로 풀어낸 인문 에세이 '목포 목포 목포'〈사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1897년 개항 이후 영광과 쇠락을 반복해온 목포의 시간을 행정이나 개발 중심의 시선이 아닌 골목과 광장,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다시 읽어낸 기록이다.  
저자는 목포를 흔히 소비돼 온 '근대역사도시'나 '눈물의 항구'라는 고정된 이미지에 가두지 않는다. 대신 서민과 노동자, 청년과 번두리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공식 역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건과 인물, 도시전설과 생활사적 기억을 촘촘히 복원한다. 오거리와 북교동 일대에 축적된 저항의 역사, 항구와 시장에서 이어진 일상의 문화는 목포가 지닌 또 다른 정체성을 드러낸다.  
책은 크게 역사·문화·사람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개항기부터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목포가 품어온 정치적 역설과 저항의 역사를 짚는다.  
2부에서는 음식과 사투리, 예술과 밤 문화 등 생활공간 속에 녹아든 목포의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한다. 흥어와 세발낙지로 대표되는 남도 음



식문화와 사투리에 담긴 미학은 구수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전한다.  
3부에서는 감대중 같은 정치 거목부터 골목의 평범한 이웃들,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들까지 목포를

지향해온 사람들을 조명하며, 폐쇄가 아닌 개방과 현대의 도시로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한다.  
'목포 목포 목포'는 과거의 향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산업 쇠락, 청년 유출이라는 지역 소멸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항구도시가 지닌 개방성과 혼종의 문화 속에서 목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역을 성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자, 도시를 내부의 목소리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영득 작가는 목포 대성동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며 공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강사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해왔다. 토박이 생활인의 시선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왔으며, 스스로를 '항토 개봉기'라 부르며 주변부의 언어로 도시를 해석해왔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피어나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개인)의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남원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기부액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20만원 40% 공제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액 30%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남원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카메라 켜서 QR찍고!  
QR코드 스캔하기

회원가입하고 남원시에 기부하기 누르고  
기부액 입력하고 답례품 선택!

**대면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2026년 남원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 관내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
-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서틀버스 등) 지원
- 거동불편 노약자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 남원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문의 남원시 대외협력팀 063-620-6097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만원+답례품 6만원으로 전액 돌려드리는 혜택!